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農業政策과 小作制度(中)
年期、永久小作의 長短은 如何?

一

吾人은 前欄에서 小作制度에는 二種類―年期 永久―가 잇는 것을 말하엿다 그리고 二種의 小作制度의 長短을 檢討할 것을 約束하엿다 그러면 『年期小作制度』는 그 長短이 如何하며 『永久小作制度』의 그것은 엇더한가

二

年期小作制度는 普通으로 小作制度를 意味하는 것이다 더욱히 朝鮮가튼 데는 全部가 이 年期小作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一年을 一期로 하야 언제든지 地主의 任意대로 小作權을 移動할 수 잇는 制度이다 이것은 地主에게는 여러 가지 方面으로 가장 有利한 바이다 小作料의 收入이 確實한 點으로 보아 다는 資本과 가티 土地가 流動性을 가지게 되는 點으로 보아 또한 小作人을 支配壓迫하기에 便利한 點으로 無制限하게 土地를 兼併하기 可能한 點으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小作人 또는 社會全體로 보아서는 거의 一로부터 十外지 不利한 것이다 一、農業改良이 普及되기 困難하며 二、地味를 保存하기 困難하나니 小作人이 土地가 何時에 他人의 手中으로 移轉될 것을 알지 못함에 더러한 營利的 經營인 以上 可及的 적은 投資로써 만흔 利益을 收穫하기 爲하는 所以이다 三、人口增殖 或은 個人慾望의 亢進의 結果로 小作權의 競爭이 行하야 小作人의 生活의 不安한 것 四、一時에 이러난 農業恐慌이 長時間으로 持續되는 것이니 이것은 年期小作人이 恐慌에 對한 抵抗力이 薄弱한 外닭이라 五、其他 社會的 生産이 遞減되는 外닭에 間接으로 他種의 産業 및 副業의 發達이 阻止되는 것이다

三

永久小作이란 그 起源이 封建時代에 잇서 歐洲에 잇서는 領主가 農奴制度가 改革된 後 엇더한 小部分에 限하야 農奴의 變形으로 保存되여 온 바이오 우리 나라에서는 그 起源은 仔細히 알 수 업스나 小作人과 特殊한 關係가 잇는 境遇에 限하야 存在하는 者이니 이것은 個人 乃至 社會經濟上으로 보아서 自作農에 近似한 者이다 다만 小作料를 提供하는 點이 相異할 뿐이나 一、土地의 改良이 比較的 行하기 可能하고 二、小作人은 小作權이 安定된 結果 生活上 不安이 減少되는 同時에 土地에 愛着心이 發生하야 農業經營上 將來가 잇는 投資를 하게 되는 것이다 三、土地에 對한 地主의 投機的 傾向을 幾分 防止할 수 잇나니 그 만큼 地代昂騰의 度가 緩慢한 結果 小作料에 對한 利潤計算이 比較的 低廉하게 될 것이다 四、農業恐慌에 對한 抵抗力이 잇슬 뿐 아니라 恐慌이 起할 可能性을 緩和할 수 잇다 五、其他 生産이 遞增되고 社會道德 다른 産業上 好影響이 잇서 農村頹廢를 匡救하기 容易한 點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긔에 注目할 點은 天災에 對한 契約關係이니 敗滅은 減少될 예도 不拘하고 例年의 小作料에 準하는 것의 不可를 避함이다

以上에 依하야 吾人은 年期小作은 地主에게는 徹頭徹尾 有利하나 小作人과 및 社會經濟上에 不利한 것을 알엇다 그리고 永久小作이 比較的 前者에 比하야 地主에게는 多少의 不利한 點이 잇다 드래도 小作人 乃至 社會經濟上에는 보다 有利한 것을 알엇다

그러면 小作制度가 根本的으로 消滅되는 것은 別問題이오 小作制度가 存續되는 동안에는 可及의 範圍에서 永久小作制度를 普及케 함이 必要한 것을 斷言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吾人은 오늘날 朝鮮의 現下事情에 鑑하야 資本家의 大部分이 地主인 것과 外來資本의 掠取로 날마다 不斷히 土地의 所有權이 動搖되는 狀態에 잇는 것과 爲政者가 積極的으로 資本家本位의 政策을 取하게 되는 結果 그 實現될 程度에 疑치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이에 吾人은 斷言을 改하야 朝鮮小作制度에 對하야 要求와 缺點과 아울러 그 必然의 産物인 小作運動의 進路를 指摘하야 當局者 및 地主階級의 反省을 促하야 姑息的이라도 農村匡救를 主張코자 한다

新聞代金 一個月 八拾錢 ... 廣告料 ... 發行所 朝鮮日報社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外國의 債務不履行은 米國農民을 苦惱케 한다
外交委員長 보라氏演說

(華盛頓十二日發) 『보라』氏는 十二日 米國上院外交委員長就任以來 最初의 演說을 爲하야 外國의 對米債務償却不履行은 旣히 多大한 租稅를 附加케 하야 米國農民의 負擔을 增加하는 것이라고 言明하얏더라

米國戰時損害金支拂承認

(華盛頓十二日發) 米國政府는 巴里藏相會議의 豫備交涉에서 米國代表 『로간』大佐와 英國藏相 『차칠』氏間에 內定的으로 協定된 賠償支拂金中에서 米國의 戰時損害金을 受取할 件에 承認을 與하얏더라

獨賠償의 解決方法
英國代表의 努力

(巴里十二日發) 英國代表는 諸種의 占領軍費及 白耳義의 優先權을 撤廢하야 解決方法을 得코자 努力中이니 卽 英國側은 『루얼』收入으로써 是等의 優先權이 滿足히 되얏다는 解釋을 가지고 잇는데 『루얼』收入의 豫算을 再次調査하야 優先權에 屬한 金額의 餘分을 一億二千萬金馬克으로 決定하얏다 但 『루얼』總收入中에서 佛白兩國의 同地方에 對한 施設費를 控除함을 容認하얏다 『라인』地方占領費는 一億六千萬馬克으로 決定하야 占領國은 幾分을 支出하기로 하야 此等 將來의 債權으로 하기로 하고 賠償金에 就하야는 米國은 一九二四年부터 總額의 二步二厘五毛를 得하기로 한지라 此를 爲하야 一九二六年에 白耳義는 優先權全部를 收入終了하얏슴으로 同年으로부터 其收入率은 八步로부터 四步五厘로 減額할지나 同年부터 生하는 餘剩 卽 白耳義의 四步五厘와 米國의 二步二厘五毛와의 差額은 英佛에 分配하기로 되얏더라 米國은 千九百二十六年부터 數年間 此의 實施를 猶豫할 터인바 其猶豫年限은 아즉 決定치 못하얏고 又 米國代表는 此를 二十四年間으로 하기로 하얏스나 今에 華盛頓政府는 十二年間을 主張하야 交涉은 容易히 結末되지 아니하는 貌樣이더라

聯合國의 償金分配
財政會議에 依하야

(巴里無電十三日發) 財政會議에서 『루마니아』『셀비아』葡萄牙를 代表한 專門家는 獨逸以外의 他敵國으로부터 行할 支拂에 就하야 見解를 提示하얏고 十三日의 全權會議에서 米國의 戰時要償은 『도스』案에 依하야 支拂할 年金의 二分五厘로 決定될 터이오 第一次年金中 佛國의 取할 分은 三億九千萬馬克으로서 爲主하야 代用支拂에 依할 것이더라

報償問題解決
山東開發經費

(巴里十三日發) 日本의 山東經費에 關한 報償問題는 聯合國藏相會議에서 日本의 要求에 對하야 滿足히 解決된 旨를 半公報的으로 聲明되얏더라

米國駐英大使
휴톤氏就任承認

(華盛頓十二日發) 信用할 만한 側에서 確實한 바에 依하야 現駐獨米國大使 『휴톤』氏는 『케록』氏의 後任으로 駐英大使就任을 承諾하얏다더라

米金輸出超過
輸入額以上에

(華盛頓十二日發) 大藏省發表에 依하면 十二月中의 米國金輸出額은 輸入額以上에 達하얏는데 이는 過去四年間來 最初의 現象이더라

歸奉한 張作霖氏
儼然凱旋將軍의 氣勢

(奉天十三日發) 張作霖은 十二日午後五時十三分 凱旋將軍의 氣勢로 意氣揚揚하게 歸奉하얏는대 出迎한 某大官에게 對하야 愉快하게 말하야 가로되

予는 段氏의 出盧에 就하야 매우 努力하야 幾分 安堵되얏스나 不注意로 因하야 吳佩孚를 逸한 것은 遺憾이다 予는 어데 외지던지 吳佩孚를 追跡할 意思로 悠悠히 天津에 滯在하던 바 近日 孫文氏의 罹病과 國民黨의 陰謀로 南方이 動搖되야 吳佩孚의 追擊이 南方討伐로 變하엿다 予는 盧永祥의 南京入의 確報를 接하얏스며 又 善後會議도 好結果로 進行하는 中임으로 歸奉한 터이라

普選案通過問題와
內面의 奇怪한 一事實

(東京電) 普通選擧法案에 對한 樞府審査委員會는 旣報와 如히 原則으로 是를 承認하기로 되얏슴으로 本會議를 通過할 것은 無疑할지나 玆에 奇怪한 一事實이 發覺되엿스니 是는 多年 普選을 唱道하야 民衆의 輿論에 訴하야 政治問題에 利用하야 오던 衆議院議員中에 普選은 吾人은 反對한다 이를 世間에 發表하면 政治的 生命을 絕하는 것임으로 樞府에서 阻止케 함만 不如하다 하야 各顧問官에게 運動하는 것으로 各自 此의 主意書에 連署하야 普選阻止를 懇願하는 中이나 到底히 成功될 希望이 無함으로 顧問官等도 驚愕하야 是等 不正議員에 對하야 與黨普選派는 相當히 葛藤을 惹起할 形勢이더라

이다云云

緊急領事會議
開催中止

(東京電) 當局者電=同文會의 院保護를 要하기 爲하야 日本領事는 野村司令官과 協議하고 佛國領事를 上陸케 하고 此에 關하야 緊急領事會議를 開催코자 한 바 上海 首席領事는 上海事務局과 協議한 後 警察官外에 必要가 업다 하야 中止하얏다 가 必要가 잇스면 更히 協議하야 行하기로 하얏더라

教費問題는
隨時答辯으로

(東京電) 十三日閣議에서 教育費增額問題는 首相의 休會後 再開議會 施政演說中에 挿入치 아니하고 質問에 依하야 藏相이 隨時答辯하기로 決하얏더라

首相三派와 會見

(東京電) 十三日閣議에서 決定한 義務教育費問題에 就하야 一兩日中에 加藤首相은 三派代表와 會見하기로 하얏는대 會는 三派幹部와 諒解를 得하얏슴으로 若槻內相은 憲政會、橫田法相은 政友會의 幹部에 對하야 十三日中 諒解를 求하기로 하얏더라

教育擁護同盟
增額運動

(東京電) 教育擁護同盟은 義務教育費增額期成同盟에 參加하야 實現運動을 하기로 하얏더라

府縣代表招集
教育費增額運動

(東京電) 義務教育費問題에 就하야 政府與黨의 態度를 非라 하야 全國町村長會事務所는 其對策을 講키 爲하야 各府縣實行委員을 急遽招集한다더라

黨員爭奪運動
政、本兩黨間에

(東京電) 政友本黨은 政本合同의 絕望을 覺悟하고 政友會內攪亂을 策하야 黨員爭奪을 運動하는 中인즉 近近 此의 表面的이 되야 大渦瀾을 惹起하리라더라

外務追加豫算
計上支出

(東京電) 十三日閣議에서 決定한 外務所管追加豫算은 佛領印度支那答禮使 山縣伊三郎公의 經費 七萬圓不足額을 追加豫算으로 計上하야 支出한 것이더라

維持解決
高敞高普校
理事諸氏가 經費擔當

全北高敞郡財團法人高敞高等普通學校는 財團이 全部 土地인 外닭으로 昨年度 空前의 旱災로 因하야 維持의 前途가 매우 困難한 中 또 同校事任理事가 五六個月前부터 辭

群山人力車軍
聯合親睦總會
任員을 改選

去八日午後八時에 群山開福洞人力車親睦會臨時事務所內에서 群山人力車軍聯合親睦會 第一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臨時議長 白雲鶴氏의 司會로 積弊하야 온 會務와 將來維持方針을 討議한 後 左와 如히 任員을 改選하얏다더라

會長 李石洪 副會長 白雲鶴 總務 金炳淳 幹事長 金有浩 評議長 車周相 評議員 安千基 金士甄 宋文玉 金元祚 外九名 顧問 李世煥 李興來 楊成道 (群山)

茂長少年의
新事業計劃

全北茂長義勇少年會에서는 去三日에 定期總會를 開催하얏는데 議長 朴奉烈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今年에 進行할 事業을 討議한 結果 實業部의 事業으로는 田四斗落에 陸地棉을 栽培하기로 하고 體育部의 事業으로는 一般 夏期를 利用하야 大大的으로 하기로 하고 文藝部의 事業으로는 每月 會員이 作文 習字 등을 ... 會員에게 巡廻活動하기로 하고 ... 現任員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庶務部理事 金方洙 會計部理事 金容使 文藝部理事 全永哲 體育部理事 金良洙 實業部理事 金容圭(高敞)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氏名明記

端川儒生諸君에게

◇端川鄕校안에서 蠢動하는 儒生諸君아 나는 端川사람이다 그럼으로 端川이란 地方에서 消息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者이다 그런데 나는 日前에 朝鮮日報에서 端川鄕校記事를 보는 때에 아지 못하는 好奇心에 끌리어 그 記事를 읽엇다 그러나 그 記事를 읽은 나는 憤怒 失望이라는 나보다 먼저 내가 부끄러움을 참는 것은 鄕土를 사랑하는 마음과 時代錯誤의 蠢動을 默過할 수 업다는 良心의 嚴肅한 命令을 抑制할 수 업는 外닭이다 이에 나는 懇曲한 誠意로써 諸君의 反省을 促하고자 한다

◇端川鄕校儒生諸君아!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갑을 하고 옷을 입으면 옷 입는 갑을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 사람의 本分을 하여야 한다 鄕校에 모여들어 掌議爭奪과 直員다툼을 눈이 뒤집히도록 싸우는 것이 먹은 밥 입은 옷 갑이며 사람의 本分인 줄 아는가?

◇諸君도 良心이 잇고 耳目을 가젓스니 時代의 思潮를 살피는 同時에 諸君의 所行을 反省하여 보라 應當 良心의 苛責도 잇슬 것이며 耳目의 놀래임도 바들 것이다 因習에 中毒되야 時代思潮를 理解하지 못한 諸君아 堯의 日月과 舜의 乾坤이 안인 時代인 줄을 自覺하라 强者는 弱者를 優者는 劣者를 富者는 貧者를 餘地업시 壓迫하고 人情업시 殺伐하고 忌憚업시 掠取하는 今日이다 그런대 諸君은 눈을 들어 우리 社會의 處地를 도라보라 敎育의 程度가 남의 社會에 落伍되고 經濟의 狀況이 아나날이 破滅의 域으로 疾走하고 잇는 것이 오늘날 우리 社會의 現狀이 안인가 그리하야 사람으로서는 堪當치 못할 壓迫、殺伐、掠取를 當하는 것도 우리 白衣民族이다 그러면 우리의 社會는 이와 가튼 百尺竿頭의 運命에 잇슴이다 우리 民族의 處地가 이러틋이 危機一髮의 絕頂에 잇슴에도 不拘하고 掌議直員의 爭奪戰에 汲汲하지 내는 諸君은 反省하여 보라

◇나는 諸君에게 부르짓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 잇다 돌이어 鄕黨의 情을 表코저 하는 者이다 諸君아 改之爲貴라는 옛사람의 말을 듯고 昨非를 覺悔하는 同時에 掌議直員爭奪에 쓰는 誠力과 金錢을 經濟困難으로 存廢問題에 잇는 端川學術講習所에 다가 쓰기를 바란다

이것이 諸君이 人間으로서 本分을 다하는 것이 아닐가 또한 社會를 爲하는 誠意가 아닐가 諸君은 時代錯覺의 妄動을 버리고 時代가 要求하는 行動을 取함이 可치 아니한가 (一生)

全北實棉高
昨年에 三百萬斤

全羅北道에서 昨年十二月末外지 共同販賣에 付한 棉花의 數量은 約 三百萬斤 價格七十八萬圓에 達하얏다는데 그의 郡別數量은 如左하다더라

郡名	數量(斤)	價格(圓)
全州	[illegible]	[illegible]
錦山	[illegible]	[illegible]
茂朱	一〇一、三二七、五	[illegible]
任實	[illegible]	一〇、九三四、〇〇
南原	[illegible]	[illegible]
淳昌	[illegible]	[illegible]
井邑	[illegible]	[illegible]
高敞	[illegible]	[illegible]
扶安	[illegible]	[illegible]
金堤	[illegible]	[illegible]
沃溝	[illegible]	[illegible]
益山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但群山、長水、鎭安은 共同販賣에 加入치 아니함)

等級別	繰綿數
一等	一、三二八、七八九、五
二等	五九一、四二一、五
三等	二六五、五五〇、五
四等	三六六、六五四、五
五等	三五三、九三七、〇
計	二、八九七、三三三、〇
操綿數	四一、三五〇、〇

(群山)

百萬圓이 入超
客月釜山對外貿易

昨年十二月中 釜山對外國貿易은 輸出이 九萬七千九百二十五圓、輸入이 一百十六萬三千八百七十三圓、合計 一百二十六萬一千七百九十八圓으로 輸入超過된 것이 一百六萬五千九百四十八圓인대 此를 昨年同期에 比較하면 輸出에 二百六萬五千九百四十八圓이 減少되고 輸入에 四萬六千四百二十二圓、輸入에 大二十五萬一千九百三十五圓의 減少이며 또 昨年一月以降의 累計는 輸出이 一百九萬二千五百七十圓이며 材料二十二萬五千七百餘圓의 增加이오 輸入은 三十萬七千七百六十三圓인데 此를 昨年度에 比較하면 輸出에는 三十九萬七千七百餘圓이 增加되고 輸入에는 五十六萬一千七百七十六圓이 減損되얏다더라(釜山)

沙等夜學
成績이 良好

巨濟沙等里에서는 同里有志青年 元容萬、梁元錫、潘富奉 三氏의 熱誠으로 客年十月一日부터 勞動夜學會를 開催하고 右三氏가 無報酬로 熱心教授하든 바 現在學生數가 男女五十名에 達하야 成績이 頗히 良好하다더라(巨濟)

道廳移轉과
職員輸送極難

近日에 釜山에 滯在中인 慶南道知事和田純氏의 말을 들은 즉 慶南道移轉에 對하야 第一 困難한 問題는 住宅인데 職員의 家族만 하야도 八百餘名임으로 此를 一時에 輸送하기가 極難하야 晉州에서 鐵道所在地外지 自動車가 十臺에 不過한즉 一通行에 八人式 輸送能力 박게는 다시 道理가 업슴으로 十餘日間이나 걸릴 터인바 一日間에 十名의 輸送能力이라 하더라도 四月一日부터 執務하자면 二月下旬으로부터 三月中旬外지는 釜山에 全部輸送할 豫定이며 任宅이 만일 그 때 외지 落成이 되지 못하면 大家屋을 借得하야 當分間 需用할 外에 他途가 無하다더라(釜山)

移轉協贊會
三萬五千圓募集

慶南道廳移轉協贊會理事會는 去十日午前十一時부터 釜山府廳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協贊會員募集과 寄付金募集을 開催하기로 하야 贊會員의 醵出金은 祝賀會費에 充當하고 寄付金은 協贊會의 目的인 道廳舍模樣變等의 實際的 需用할 施設費에 充當하기로 收支를 區分키로 決議하얏는데 寄付金總額은 三萬五千圓으로 豫限하고 그 內에 一萬圓은 銀行會社旅館料理店等으로부터 募集하고 二萬五千圓은 一般에게 分募集하기로 各委員을 定하야 勸誘에 努力할 터이라더라 (釜山)

醴泉青年評議會

慶北醴泉青年會에서는 去九日에 幹部例會를 利用하야 同日午後八時부터 同會臨時事務所內에서 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 後 同十一時半에 閉會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任員補缺選擧의 件

一、顧問推薦의 件

一、義捐金徵收의 件

一、滯債撤徵의 件

一、本郡內罹災同胞救濟의 件

一、其他事項(醴泉)

牛檢疫所
南浦에도 設置
今年內에 實現確定

鎭南浦商業會議所에서 移出牛檢疫所를 鎭南浦에 設置하야 달라고 總督府에 請願을 提出하얏다 함은 旣報한 바이어니와 그 後 要路當局에서도 蔣大技師를 直接派遣하야 實地를 調査한 結果 確實히 그 必要를 認定하게 되야 今年度內에 鎭南浦外에 二個所의 獸疫檢疫所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旣히 그 豫算案을 明年度總督府豫算編成에 外지 計上하얏다는데 該新設檢疫所의 敷地建物及其他 一切의 設備는 全部 各新設地의 有志者가 寄附키로 되얏슴으로 鎭南浦日本人側資本家들은 所謂 移出牛信託株式會社라는 것을 發起하야 移出牛業의 獨占을 相對條件으로 該檢疫所設置에 一切의 設備를 寄附하겟다 하야 只今 그 實行方針을 協議中임으로 느저도 今春解氷期頃에는 該檢疫所建築工事의 着手를 보게 되리라더라 (鎭南浦)

安東領事裁判
民刑事取扱數

昨年中에 安東縣領事館裁判所에서 取扱한 民刑事及登記事件總數는 如左하다더라

◇民事及其他

民事訴訟	九七	督促	六九
假差押	三一	和解	一九
競賣	一五	破產	一
非訟	一一	雜	八四
執行	七六	不動產登記	四三六
共同	八〇	商業登記	二五九
工場財團登記	三三	公證	一五八
確定日附	五二		

合計 一千四百二十一件

◇刑事事件

竊盜	二〇	諸規違反	九
橫領	五	詐欺	五
强盜	一	阿片失火各	四
其他雜	一		

合計 五十五件(安東縣)

赤樂學校擴張
隆熙時代에 創設되여

平北寧邊郡延山面花川洞赤樂學校는 隆熙四年八月四日에 私立學校認可를 得하야 波瀾이 重疊한 十五個星霜을 만치 못한 資本으로 僅僅히 維持하야 오든 바 三一運動以後로 一般의 向學熱이 熾盛함을 따라 自然히 校舍가 狹窄함으로 延山面有志諸氏와 同校設立者 申泰朝校長 全成邊兩氏가 熱心活動한 結果 一般有志로부터 數千餘圓의 寄附를 어더서 新校舍十間을 宏壯히 增築하얏는데 新校舍에 生徒를 收容하엿다는 데 寄附한 有志의 氏名과 金額은 左記와 如하다더라

赤樂齋 一同 五百圓、申泰朝 一百圓、申泰鉉 二十五圓、金明鍵、申泰完 各二十圓、金世恒、申俊旭、梁永浩、申宙均 各十五圓、鄭泰珉 十二圓、金成適、金顯祚、金麟翼、全聖根、全興淵、全基變、金炳俊、吉允禎、吉聖楨、全履鳳、梁京碩、白熙範 各十圓、金喜淳、崔錫武、白顯銅、鄭錫允 各八圓、金澤麗、高仁珏、宋益夏、李應龍、全履鏑、梁麟羅 各七圓、全炳河、尹成淑、全碩弼、梁益吉、金尙鍵、全善濟 各六圓、金鶴模、崔泰涉、金永福、全基禎、全賢弼、全用適、金東時、全基禎、金興律、金俊健、金炳鍵、申錫湖、金鍊楨、金道淳、吉適龍、金應龍、全履道、全喜適、全履興、全履淳、張國甫 各五圓(五圓以下畧)(寧邊)

南浦穀物檢查
客月中만 八萬七千餘叺

鎭南浦穀物檢查所의 客年十二月中 穀物檢查數는 玄米 一萬一千二百四十一叺、白米 七萬二千七百四叺、大豆 三千九百七十九叺、合計 八萬七千九百二十四叺인데 種類別等級은 玄米 日出 一等 四十二叺、二等 二千六百七十三叺、三等 四千九百八十五叺、四等 一千六百七十五叺、計 九千三百七十五叺、糯 三等 三叺、四等 五十八叺、計 六十一叺、毛租 四等 四十五叺、等外 二十九叺、三等 二百九叺、四等 十二叺 計 四百叺、在來米 三等 一千二十叺 四等 二百五十二叺 計 一千二百七十二叺인바 以上 合計 一萬一千二百四十一叺인데 輸出港은 江西鳳山南市平壤安岳地方의 生產米로 日本大阪港에 移出한 數는 日出特等 一千七百九十四叺 一等 二百五十一叺 二等 四百十八叺 計 六百六十九叺 毛租 一等 七萬二百二十叺 等外 十八叺 計 七萬二百三十八叺 合計 七萬二千七百四叺이오 安岳長淵殷栗甑江西殷栗地方의 生產米로 日本大阪及神戶港에 移出大豆는 中粒 三等 九百七十九叺 三等 三千七百五十一叺 四等 二百二十八叺 合計 三千九百七十九叺이라더라(鎭南浦)

鎭南浦府豫算은
積極的으로 編成할 터
澤永府尹談

鎭南浦府에서는 數日前부터 明年度豫算編成을 始作하얏는데 該豫算編成에 對하야 日本政府의 方針이 緊縮方針인 것은 勿論이나 鎭南浦로 부터의 諸豫算은 緊縮하되 有利한 致途를 擇하라는 命令이 有하엿으로 鎭南浦로서는 可謂 財源이 라고 할 만한 歸前埋藥水道計量側及府立病院의 改造其他 有利한 方面을 向하야 前進할 計劃임으로 前年度보다 豫算은 膨大식혀 서라도 以上諸事業을 積極的方針下에 編成하는 中이라고 澤永鎭南浦府尹은 말하더라(鎭南浦)

南浦人事相談
求職이 五十二件

鎭南浦警察署人事相談所의 昨年度下半期事務成績은 接受件數及解決件數가 共히 一百九十九件이라는데 其內譯은 求職이 五十二件 住宅問題 工場爭議의 件 三十九件 外에 實實等諸爭議의 件 三十件 衛生上問題 一件 感化保護上問題 三十件 雇用上問題 六件 精神上問題 三十八件 等이라더라(鎭南浦)

國境을
通過한 外國人數
再昨年보다 半減

昨年中에 國境을 通過한 外國人數는 出國數가 二千七百六十二名 入國數가 一千五百六十五名 合計 四千三百十七名 中 露西亞人이 二千四百八十九名이오 英國人이 一千四百八十九名이오 米國人이 一百十二名이오 其他는 獨人 波蘭人 佛人等인바 再昨年度에 出國 四千二百四十名 入國 四千二百六十名 合計 八千五百名에 比하면 約 半數나 減少되얏다더라(安東縣)

平壤民刑事取扱數

平壤地方法院에서 昨年度에 受理한 件數는 民事는 單獨이 千九百七十一件 合議가 二百二十五件이오 刑事 普通訴訟은 百八十一件이오 刑事는 單獨이 五百八十八件 合議가 百二十四件이라더라(平壤)

文長老의 特志

龍川郡楊西面東坪洞東坪基督教會長老 文三彥氏는 以來 教會事業에 獻身하든 바 鐵山邑教會에 金三十圓과 楊島教會에 金二十圓을 寄贈하얏슴으로 兩教會當局者는 勿論이오 一般人士의 稱頌이 藉藉하다더라 (龍川)

義州各校開學日字

義州郡內 各學校 開學日字는 左와 如하다더라

公立師範學校 一月二十六日、義州公立農業學校 一月二十五日、義州公立農業講習所 一月十二日、義州公立普通學校 二月二日、義州公立普通學校分校(師範代用附屬) 二月二日、義州私立養實學院 一月二十五日(義州)

文川도에
饑饉救濟會
二個團體의 主催로

咸南文川郡에서는 當地우리青年會와 本報文川分局의 主催로 去十一日부터 本報文川分局事務室內에서 饑饉救濟會를 組織하얏는데 決議事項은 左와 如하다더라

一、會員募集의 件 會員은 執行委員이 各地方으로 巡廻하며 募集할 것

一、任員選擧의 件 被選任員 委員長 孫炳國 執行委員 趙正淳 金錫垕 孫膺寬 趙君和 成錫然

一、各面에 委員派遣의 件 執行委員 五人을 各面에 派遣케 하야 各其 區域을 指定할 것 郡內面 孫炳國 明孝面 趙正淳 龜山面 孫膺寬 都草面 金錫垕 雲林面 趙君和

一、各團體及地方有志의 連絡을 取할 것 地方에 在한 各青、少年團體와 有志들과 互相連絡을 取하야 會員募集에 徹底한 目的을 貫徹케 할 것 (文川)

會寧饑饉同胞의
救濟大演藝
同情金이 多額

咸北會寧郡活勇青年團에서는 慘한 地境에 陷한 饑饉同胞의 爲하야 有志十餘團體의 後援下에 萬年座에서 去七、八兩日間에 饑饉救濟演藝大會를 大盛況裡에 興行하얏는데 觀衆의 熱血에 서 나오는 同情金이 互額에 達하엿는데 同情人士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李東運 白米二十斗 三光組 十圓 李興戴 尹泳璉 金禹治 李始煜 會友學生親睦會 無名氏 各五圓 無名氏 朴璋來 青年印刷所 時代日報支局 少年普樂部 各三圓 東亞日報支局 無名氏 小米三斗 無名氏 文興俱樂部 金秉均 各小米二斗 金濟龍 閔常基 谷白米一斗 金熙均 立成道 朱燻 韓澤金 黃承南 石鏡會 友學生親睦會 朝鮮日報支局 李永在 豆林親睦會 朝鮮日報支局 金長煥 泉德會 開闢社支社 金鉉富 李學應 盧成龍 會寧女子青年會 松子 海濱樓 各二圓 若子二圓五十錢 南廣澤 徐楨奎 蔡旋日 尹師堯 朴斗淋 金香蘭 金在鎰 李哲相 廉香 北鮮洋服店 子 禹文鉉 兪敬淑 無名氏 車景喆 裵寶淑 姜瑾周 洪瑞憲 吳相鎬 羅在璽 金時榮 兪泰俊 李聚晚 趙夏均 閔璘德 洪才龍 金昌琪 吳相乙 新山治一 金章憲 金松童 金麟洙 鄭銀石 朴圭赫 金秉極 曹明俊 崔一鏞 日松 金光錫 金道伸 申運心 崔煥球 李圭獲 金永俊 各一圓 劇場座主 二十四圓 會寧電氣株式會社 十圓 金在鉉 李龍珠 白羽政吉 各白米一斗(會寧)

商業은 凋落되나
酒商만은 興旺

咸鏡南道豊山郡內는 金融의 逼迫으로 例年에 比하면 布木商은 五分의 一이 減少되얏스나 酒類販賣業者는 도리어 三分의 一이나 增加되얏다더라(豊山)

一、各團體及地方有志의 連絡을 取할 것 地方에 在한 各青、少年團體와 有志들과 互相連絡을 取하야 會員募集에 徹底한 目的을 貫徹케 할 것(文川)

文川米生產高

前年보다 三千餘石增收

咸南文川郡의 昨年中 生產米 實收高는 總額 一萬四千八百十七石인데 此를 前年度 實收高 一萬九百三石에 比하면 三千九百十四石이 增收된 바 面別로 表示하면 左와 如하다더라

面名	作付反別	收穫高(石)
郡內	二一四、〇町	一、七〇四
明孝	一五九、五	一、一八一
龜山	六一九、五	五、一九八
都草	七六〇、九	六、〇三六
雲林	一〇〇、五	六九八
總計	一、八五四、四	一四、八一七

(文川)

岐興副業獎勵創立

咸南永興郡德岐面昭山、塔山兩里는 五六十戶되는 貧民村으로 年年히 生活上에 苦痛이 莫甚한 것을 當地有志 朴東協、朴文變外諸氏가 遺憾으로 생각하고 去十二月中旬부터 岐興副業獎勵會를 組織하얏는데 目的은 無產者에게 職業紹介와 生活補助에 努力하는 同時에 民風改善과 教育、體育發達等을 獎勵할 터이라더라(永興)

特別警戒의 所得

旣報와 如히 去月二十五日부터 同月五日外지 元山警察署의 警員이 總出動하야 年末年始의 特別警戒를 實行한 結果 竊盜의 被害者가 減少되얏는데 今番의 檢擧된 人數는 竊盜二名、賭博十七名、警察犯處罰規則違反 一名、阿片吸煙者 一名 橫領 一名이라더라(元山)

大津夜學院設置

江原道高城郡縣內面大津里에서는 全寧來、金永祚、金仁祿、朴容澤 諸氏의 發起로 近者에 大津勞動夜學院을 設立하얏는데 敎員 金永祚氏의 熱誠으로 將來가 頗히 有望하다더라(高城)

洪原郵所業績

洪原郵便所에서 去年十二月中에 取扱한 業績은 左와 如하다더라

◇受入部

通常爲替	二四、二二三圓
電信爲替	三、七二三圓
小爲替	三、五六三圓
外國爲替	九一圓
郵便貯金	一、一七五圓
郵便振替貯金	六二、二一四圓

◇拂出部

通常爲替	一二、一五八圓
電信爲替	四四、七五七圓
小爲替	一、二九三圓
郵便貯金	一四、二〇六圓
郵便振替貯金	一八三圓

(洪原)

烟艸한 七十萬圓

仁川專賣局出張所管內의 昨年中 烟草消費額이 七十一萬一千九百三圓이라는데 地方別은 左와 如하다더라

仁川	五一八、六一九圓
富川	一八、七一七
江華	八四、五六七

(仁川)

婚姻은 三百餘件
離婚은 三十三件
昨年仁川戶籍狀況

昨年中 仁川府內의 出生死亡及婚姻離婚의 件數는 左와 如하다더라

◇出生數 朝鮮人 一一二六 日本人 二五一 外國人 一 計 一三七八

◇死亡數 朝鮮人 一二三九 日本人 二六六 外國人 三三 計 一五三八

◇婚姻數 朝鮮人 三〇七 日本人 一〇四 計 三

◇離婚數 朝鮮人 三三 (仁川)

仁川週着穀物

客年十二月中 仁川物產客主組合을 經由하야 週着된 穀物取扱高는 總計 六十六萬二千百六十三石인데 就中 玄米는 ... 正租는 ... 一萬二千二百五十二石을 差引하면 左記와 如하다더라

玄米	二〇、六六石
白米	一六三石
正租	五四、七二四石
大豆	四、九七〇石
大麥	一〇石
小麥	二二四石
合計	六六、一六三石

(仁川)

桐峴驛客月業績

客年十二月中 桐峴驛業績은 左와 如하다더라

▲乘車人員 三七、四九一 ▲降車人員 三八、六三七 ▲入場人員 二六七 ▲小手荷物斤量 二、二五五九 ▲貨物發送噸數 七八四 ▲貨物到着噸數 二六、九四七 ▲客車收入 二六、二〇九 ▲貨車收入 三九〇圓 (仁川)

桐峴驛上旬業績

一月中上旬分 桐峴驛業績은 아래와 갓다더라

▲乘車人員 九、八三二 ▲降車人員 一〇、九〇九 ▲手荷物發送斤量 七二八〇 ▲貨物發送噸數 七三 ▲客車收入 八五二二圓 ▲貨車收入 四二五圓 (仁川)

客年仁川花柳界
一年間 營業 一人에 平均 六百六十圓쯤

仁川龍洞券番의 昨年中 妓生의 노름노리 總時間數는 一萬三千二百五十六時間으로 日數를 延算하면 一年半이 나되며 또 다시 一時間에 一圓二十五錢式으로 換算하면 一萬六千五百七十圓이라는 莫大한 金額에 至하는 바 年中 第一 收入이 多하기는 十二月의 一千八百二十七圓五十錢이오 第一 少하기는 十月의 七百六十八圓七十五錢인대 同券番의 在籍妓生은 二十人 平均으로 보면 每人前에 約 六百六十圓쯤이라더라(仁川)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十三日
後場小弛

今前場阪止價三十九圓四十五錢의 報와 共히 三十五圓八十六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阪地後報三十九圓四十一錢인 四丁反落을 據하고 三十五圓七十九錢에 場을 始한 後 二節亦七十九錢의 低價를 維持하다가 阪地四節四十八錢인 七丁反高를 接하고 八十七錢外지 返戾하더니 結局 阪地四十一錢의 止價를 報함으로 買氣俄然萎縮되야 八十錢으로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八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百五十二丁이더라

◇阪仁氣配◇

大阪 三十九圓三十五錢七錢

仁川 三十五圓七十八錢九錢

◇各限俵合◇ 十三日後場

賣方 / 買方

當限(計六、六〇〇石) 中限(計二六、六〇〇石) 先限(計一三、七〇〇石)

[illegible]	五、八〇〇石	[illegible]	一〇〇〇石
[illegible]	四〇〇〇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場況
十三日後場

今後場 阪地場況은 地場及兵庫筋의 賣押으로 買氣稀薄하야 三十九圓四十一錢에 場을 始할새 此際에 當地『마바라』筋의 利喰急으로 四十八錢外지 返戾하엿스나 戾價에는 또한 賣物이 現出하야 上伸치 못하고 止前에 四十五錢으로 下押하야 結局 四十一錢으로 大引되다

◇各地止價◇ 十二日後場 前止比較

兵庫	三九、一三	一八低
下關	三八、八九	八低
桑名	三八、一七	二一低
名古屋	三八、〇〇	三七低
金澤	三八、五八	一八低
熊本	三八、六五	二三低
仁川	三五、四〇	一一低
大阪	三九、四〇	二四低
東京	四〇、四二	一三低

互利를標榜하고 貧民血을搾取

피해자일백오십명이분긔 조합장에게교섭을하기로 營業中止된相互利殖組合

긔보한바와가티대판시서구아파좌중통(大阪市西區阿波座中通)일뎡목에 본뎜을둔 커리자금대부(低利資金貸付)라는미명을가지고 삼택승웅 (三澤勝雄)씨가 경영하는 상호리식조합(相互利殖組合)은 조선에팔개소에지뎜을설치하고 조합원(組合員)모집에대대뎍으로활동하야밀양상호리식조합 출장소(密陽相互利殖組合出張所)에서도 일백오십명의

조합원을 작년오월부터 모집할때에 선뎐하기를 매일얼마식더금을하고 조합원이 되면 한목큰돈을 내여준다더니 협한리식으로자금도대부한다고한바 일반은그말에매우편리하겟다하야장사하는빈민이 날마다일원혹은몃십전식 쳔신만고로 더금을하야 일백오십인의 조합원이더금한

총금액은 그동안일만사쳔원에 달하얏는데 그후동조합의하는일이 최초의 선뎐한것과는 갓지아니함으로 일반조합원은불평이 비등하든바 이소문을듯든경찰당국에서도내용을탐사한결과 그지뎜에 영업금지를명하고 밀양경찰서에서는 대판본뎜에까지 철뎌한조사를 하여본후에지난 십이월십일에 밀양

출장소장 산본일작 (山本一作)을 불러중요한 서류(書類)를 전부검렬하고 영업을중지하얏는데 일반조합원은 분긔하야지난 십이일 밀양성내고야교회당 (高野敎會堂)으로 조합원오십여명이모히여출장소장산본일작의조합 내용에 대한설명을듯고 일반조합원은 분긔하야 가난한인민의 피를빨어 먹으라는이와가튼 조합이 어데잇느냐고

한참야단 을치다가엇지하든지 더금한돈이나 차질방법을취하자고 오는십오일에 조합장삼택승웅이가 밀양을 온다하니교섭위원을 선뎡하야 교섭하기로하야 당장에교섭위원을 선뎡하고 산회 하얏다더라(밀양)

巧妙한債券詐欺

넉장을사긔

십삼일오전 열시대판 북구복빈(大阪北區北濱)삼십일번디주권매매산일합자회사 (株券賣買山一合資會社)에뎐화로 서구서사뎡경천사(西區西寺町正泉寺)로부터조선식민흥업사채 (朝鮮殖民興業社債) 오백원자리 넉장을가저오라고함으로 진명모(秩名某)(三)가가지고간즉 이십세가량된남자가 방으로인도한후 아버지는 나히가 팔십이넘엇는데 아직죽으시고 계신바 모든거래는 내가한다고 하면서그사채를 첫방으로 가지고간채로도라오지아니 함으로 다른사람을차커룸으매일컬모든다고함으로비로소 속이는 것인줄알고즉시선장서(船場署)에 계출하엿는데 수단과인상(人相)이등본(藤本)『비루부로킨』의사긔범인과비슷하다는바방금엄중히수색중이라더라

「스리」逐年增加

경긔도의 최근칠년간경향

최근경긔도 경찰부형사과(最近京畿道警察部刑事課)에서 소매치기(스리)도적조사한바를드트면대정칠년 피해삼십이건,검거십칠건

동팔년피해 일백오십구건,검거오십칠건

동구년 피해삼백이십칠건,검거백사십삼건

동십년 피해사백륙십륙건,검거백십일건

동십일년 피해사백칠십사건,검거구십일건

동십이년 피해삼백륙십삼건,검거사십오건

동십삼년 피해이백 이십일건,검거일백 팔십건

대뎡십년경부터스리도적은비상히 증가하얏다한다 이범행은비상히교묘한바 원래조선에는『스리』도적이 업섯는데 일본서 수입한것으로 경찰부모경관은 말하되조선사람의『스리』는아즉일본인의『스리』에 비하면 어림업시 유치하다고하더라

洪原署에阿片犯

중국인을검거하고 아편외지압수햇다

함남홍원 경찰서(咸南洪原警察署) 동운주재소(東雲駐在所)에서는 지난구일에 아편범인(阿片犯人)을검거하얏다는데이제 그내용을들으즉 그자는 잡화상의모양으로 목상(木箱)을 지고 주재소앞을 지나 함흥(咸興)방면으로 가는때 그행색이수상하야취됴한결과중국인왕옥(王玉)(三○)이란자로아편밀매자인것이판명되는동시에아편이백륙십몬메외지 압수하얏다더라(홍원)

郵便所長妻가 바다에빠저자살

려수 우편소장동정여(麗水郵便所長藤井□興)씨의안해 동정『괴이노』(三三)는지난오일 오후아홉시경에동뎡삼뎡조면공장 (東町三井繰綿工場)압해안에가서 몸을바다에 던지여무참히 죽엇는데원인에대하야는 아즉 알수업스나가뎡불화인듯하다더라(려수)

沙里院에 乞人日增

매일평균륙칠인

황해도(黃海道) 일대에 수재(水災)충재(虫災)한재(旱災)로 인하야긔근(饑饉)이 심하다함은누구나아는바어니와 근자에 와서는긔근에 견듸다못하야 일일것도업슴으로 어더먹을수 밧게는업다는생각인지사리원(沙里院)에는매일밥(飯)어드러오는사람이 평균륙칠인식이나 되는데안저서 어드러오는밥을 주는사람들도이로 엇지할수업서 한누룽거리라더라 (사리원)

無職勞働者가 皇族에救助歎願

닷자곳자로어소에드입 헌병이잡아취조하는중

십삼일오전 여덜시반경에 나히삼십세가 될락말락하고 로동자가티차린남자가 청산 황자어소(靑山皇子御所)에와서 문압헤서파수보는 황궁경관 (皇宮警官) 과헌병의 제지도 듯지아니하고 질부궁 (秩父宮) 에게배알하고십다고 문안으로 드러가려하는것을헌병분대에인치하엿는데 그는 주소부뎡한미차미차랑(米次彌次郞)이란자로원적이내무대신후등신평(後藤新平)씨의집에서생노릇도한일이잇섯는데북해도(北海道)에가서로동자노릇을하다가 그후다시 동경으로와서 직업도업고 생활이궁하니 뎐하에게 구조를빌것다고하엿다더라

膽寫版意見書

질부궁뎐하 류학의길을막고자

불원에영국에류학하실질부궁뎐하(秩父宮殿下)의 출발을 조지(阻止)한다고 등사판으로 의견서(意見書)를 화족(華族)과 대관(大官)에게배포하야조지운동을하는데 보낸사람은정긔사(正機社) 동인강본심오(岡本甚吾)라하엿슴으로 경시텽에서 범인와거처를엄탐중이라더라 (동경뎐보)

元山經濟界도 화류계만활긔

일반의생활은 날이 갈수록 핍박을밧는이때에 원산(元山) 경제계도 일반이전에비하면 말니못되는형편인데 당디춘섯권번(春城券番)의작년중영업성적을보면 기생이십명의 소득이일만오천원이오 동조합의수입은 일천오백원과잡수입삼백원을합하면일천팔백원이라는바화류계만은얼마나 활긔가잇는것을 알만하다더라(원산)

釜山海에漂着屍

원인과씨명는미상

지난십일오후 다섯시나 되야동래군서면우암리 (東萊郡西面牛岩里) 우역검역소(牛疫檢疫所)부근바다에 한삼십세나 되여보이는남자의시톄하나가떠잇는것을 걸가는사람이 보고 부산수상경찰서(釜山水上署)에신고를하엿는데 경찰서에서는 즉시주작공의를 다리고현장에 출장하야검시하엿스나 그죽은 원인과주소씨명까지 아지못한고로 증거를조사중이며 시톄는 서면사무소에인도하야 매장케 하얏다더라(부산)

北京留學生이 海外研學社를 조직하여

目的은文化紹介

북경에가서 공부하는 우리조선류학생오경파 (吳耕波) 씨외제씨의발긔로 해외연학사(海外研學社)를조직하야사무소를북경 동성 륭복사 대동공우(東城隆福寺大東公寓)안에 두고사무를 보아가는중인데 목뎍은 해외각국의신문화를 조선내디에 소개하는동시에 조선고유의 문화를해외에 소개할계획이라하며 남녀중학 정도이상의 학생은누구든지 드러갈수잇다하며 입사비로 대양오각(大洋五角)과 월연금매월 일각식을 밧는다더라 (북경)

十四歲少婦 斷腸의哀話

나는죽어도 싀집가기실소

과부어머니를혼자두고 싀집사리마다는새악씨

요새충남 연기군조치원면 조치원리(燕岐郡鳥致院面鳥致院里)본뎡통 이뎡목 김대남(金大南)의려관칠호실 건너방에서는 나히삼십여세 가량이나 되여보이는녀자하나이 안저잇다 그엽헤는십삼사세 가량되는 새악씨가고개를숙이고 한방울 두방울흘러나리는 눈물을 이리씻고저리씨츠며 목메인소래로 어머니나는 싀집으로가기실여요 언제든지어머니와가티 잇겟서요 어머니에서 억지로

시집으로 가라하면저는불효의 말삼으로 황텬에가신아버님을 차저가겟습니다 하더니자긔 어머니의 무릅에업드리어슬피운다

우는딸의등을 어루만지며 이애우지마라 네가오늘 이와가티끈경에잇고 천도가불행히 된것이모다어미의

잘못이니 용서하여다고 아모리 괴로웁고 또괴로움드래도남의 비평도 잇슬것이니 얼종부이니 오날경우로든 엇지할수업다아죽으시가로가잇스면내가무슨영업 이라도하고 한간집이라도작만하면너의내외를더려다가자미스러운 세월을 보내도록하겟다하며 진주가튼 눈물이업되여우는 새악씨의등에 떠러진다이때 밧그로부터 십여세가량되는녀자와 팔구세미만의 녀자가드러오더니 어머니 웨—우시요엇님웨우시요 하더니 네사람이한숨이되여 서로 붓삼고우다가서로 만류하고 서로위로하는것은 누구나불론하고 보고듯는사람은그들의 사정이매우 복잡한것을 추측하여 알려니와동정의눈물도 흘리지아니치 못하겟다문밧그로부터

이십가량 이나되는소년하나이 강을숙여쓰고무엇을일은것가티황황히 드러오더니 울고잇는네사람을처다보고쇠려분드시 셧다가『나들실라고가는이상에는 성례전에드린 돈이나내고가시오 만약 내지 아니하면 관청에교 셥이라도하여서 밧도록하겟소』하며최촉이 혹독하다그자세한내요을들으면컨긔삼십가량으로 보이는녀자는 본래련안군북면법준리 (天安郡北面延春里)에사든 하채란 (河彩蘭)(三一)이다 자긔남편을일즉리별하고 딸만삼형데를다리고 근근히지내다가 작년봄에 연긔군서면신동리(西面新洞里)에우거케되엿다 마츰하채란은 맛딸조홍렬(趙興烈)(一四)을맛당한곳이잇스면

미며느리 라도보내려고사면구하는 중이라는것을 들은그동리박청오(朴成五)는자긔아들련길(連吉)(二○)과결혼하자고요이되 혼인한후는 상당한곳에다가영업할 배치를 하여주겟다고감언으로 달내이어 결국성혼와지식힌후에는상약한바와가티영업을식히지아니하고자긔집사랑을 주며가티사자고 떼어어한집에서 살게되엿스나 작년십월중천호후는 범백이행뎡하고 갈시가너무나 심하야 결국가리사지못하고 사오원전에 세간몃개를팔어가지고 조치원으로 둘재딸과셋재딸을 다리고와든바 전긔조홍렬은 나도어릴뿐 아니라싀집이심하고 또는 홀로된모친이의지할곳업시

뎡처업시 가는것을보고마음에 불평이생기엇는지 또는다른 사정이잇섯는지는 아지못하나 박청오의집을 떠나종적을감초엇섯다 박청오는 며느리차저달라고 경찰서에 하채란을걸어고소장을 데출하엿고 하채란은자긔딸이 죽지나아니 하엿나하며렬도련변으로방출도와오른나리면서 조홍렬을 부르짓다가마츰내어느집에숨어잇는것을발견하야가지고는 홍렬을 무지즈며 식가로가서 잇스라고달내되홍렬은죽어도싀집에는아니가겟다고 항거하매 박련길은홍렬이가시집으로가기실커든결혼전에드린돈이나 내여놋코 가라고진긔와가티 재촉한다는데 하채란은딸을보 내고저하되 나이어릴뿐더러장래에엇던신고가발생될는지아지못하고 박련길의 청구대로금전을 내여주고

관계를끈 코저하되금전도 업슬뿐아니라 싀집보냇든딸을다려다가 다른사람에게 주잔말도못되야 생각이복바처고 압일을엇지할지몰나어린딸셋만붓잡고 쓰린눈물을뿌리며 한심으로날을보내며장래고생을더하드래도 조치원부근에서 무슨짓을하든지 홍렬의나이 좀더먹고박련길의동정을 바더 잘사는것을보겟다고 박청오에게 말하나이것저것이여의치못하야동리몃몃사람에게 선후책을 연구하여달라고의뢰한다는데혹은

하채란을 욕하고혹은박청오를 욕하는동시에 조홍렬의전정이 불상하을 애석히녁이는사람이만타이사람들의장래는과연엇지되려는고!(조치원)

教育熱

李奎應氏 재산을공헌하고 학교장래를축수

충남청양군 비봉면(忠南靑陽郡飛鳳面)은청양읍과 약이십리나상거가 떠러젓슴으로 매양학교에다니는 아동들이 이십리나되는청양공립 보통학교에를 다니게되는고로 자연 통학하기에곤난이심하야 어린이의 교육이다른디방보다도 뒤떠러지는바 일반이유감으로

생각하나 누가솔선하야이것을구제하는이가업든중동면록천리리규응(李奎應)씨와씨의령식리재능(李載能)씨는부자가활동하야 오년전에 사립후원에사오간집을 짓고 박청의숙(博[illegible])이라는 간판을 부치고 일변 교사를 고빙하며 일변아동을 모집하야 성심으로교육에 힘을써서내려왓스나 원래재산이넉넉지

못함으로 자연설비가불충분한점이만흠으로항상아동에게대하야 미안하게생각하더니리규응씨는혹시공립으로나만들면이보다는상당하게되겟다는생각으로 당국에교섭한결과 학교교사를면에서건축하면공립으로해주마고함으로 일반의성히를조직하얏섯스나 자연 여러사람에게긔부를밧게되면얼는락착이되기어려울듯함으로단독으로공사비일천삼백여원의

거축비를 드려교사를건축하고작년사월에보통학교인가까지는바더노핫스나얼마되지아니하는재산으로 일시에 륙천여원돈을내노케되엿슴으로곤난이막심한중인데 리씨는 말하기를「오즉나의목뎍을달하엿스니 나의일시에 어려운것은 관계치안타」고하며나의바라는바는 그학교가 날로번성하야 만흔인물을 길려내며 또한단임업시 길게길게영원토록건강하기만바란다고하더라(청양)

一夜四處火災

원인은됴사중

충남홍성읍 서문외(忠南洪城邑西門外)에서는 지난십일하오팔시부터 익일삼시까지 려하야례배당의두곳 파부근에김재원(金在元)손영만(孫濚悅)의 집에는 별안간 불이나서 일시대소동이엿는데 그원인은자세히 알수업슴으로 방금됴사중이오 손해는별로 업다더라(홍성)

駐在所巡査가 獨立團이라假稱

백성을속이려는순사의악희 이것은치안방해가안되는가

십일일밤에 함흥군덕산면(咸興郡德山面)에서 수부인 박세진(朴世鎭)의집에도독립단이라자칭하는자 수명이들어와서군자금오만원을강청하얏스나 돈이업다하야목뎍을달하지못하고도라갓는데그 소위독립단이라자칭한자는그면주재소의수석일본인순사와조선인순사수명으로서그순사들은박세진을보고작란으로그리한것이라고하얏다더라 (함흥뎐보)

夜學廢止로 女學生의歎願

삼십여명련서로

함남문천군 귀산면성저리(咸南文川郡龜山面城底里)에서는 당디유지제씨의 발긔로 작년오월삼일부터 전긔장소에 녀자야학회를설치하고 지금까지 조흔성적으로 교수하야 오든바 요사이에는녀자야학을 폐지하고 그대신에남자야학을 설치할 방침임으로 지금까지통학하든 녀자생도삼십여명은 련서하야 야학회당국에 탄원서를 데출하얏다더라(문천)

스리盜만키는 電車안이第一

그다음은뎡거장

작년하반긔(下半期)칠월부터 십이월까지 그동안 경성시내에서나타난쓰리는도적피해건수는 일백삼십륙건이오피해금액이사천삼백팔십삼원의다수에이르러 검거수가 일백사십팔건이라 는바 그중 가장피해가만혼 장소로는 뎐차안에서 륙십건 뎡거장구내에서 십륙건 가로상점압헤서이십칠건이 나된다더라

新義州電氣 料金減下

륙분내지삼할감

신의주뎐긔회사 (新義州電氣會社)에서는 그회사의영업구역인 신의주와 의주두곳의 뎐등료금을나리고져 그동안데신당국에 신청중이든바 요전번에 허가가되얏슴으로 지나간일일부터 아래와가티 료금을 나리엇다는데 종래에 계량등 (計量燈)은 한집에 다섯이상을 켜야되는것을 이제부터는 일백(왓트)이상을 수용하는곳에는 계량등으로 가설하게되야일백이십촉의뎐등을이상나를켜거나오십촉의뎐등을이상을켜더라도 계량으로 료금을내이게되얏더라

◇新義州定額電燈料金 一○燭五錢減▲一六、二四燭一○錢減▲三二燭二○錢減▲五○燭三○錢減▲九○燭一圓減▲一二五燭四○錢減

◇新義州計量等料金 一五○왓트四二錢減▲三百왓트二九錢減五百왓트九二錢減▲七五○왓트一圓三二錢減▲一千왓트一圓七二錢減

◇新義州定額瓦斯料金 一○、一六、二四燭五錢減▲三二燭一五錢減五○燭二○錢減▲九○燭六○錢減▲一二五燭九○錢減 (新義州)

改良된三等列車

류리창이두겹이되고 선반을넓게개량햇다

최근부산공장(釜山工場)에서는 개량한 삼등객차를 만드는중인데그요점은 종래류리창이 한겹이든것이두겹이되고또컨에류리창을 잘열수가업든것을 이번에는맘내로열수잇도록만드럿스며 손에 드는짐을 잘언도록선반을넓게개량하여 려객의 편리를도모하엿스며 핸—뒤에 차장실이달리어 렬차보안(列車保安)에 붐편이 업스리라더라

一女兩夫의活劇

본부를배척하고나온소부 두간부의싸홈불또부첫다

지난십이일 경의선황주역(京義線黃州驛)에서는 엇던청년두남자가 청춘녀자하나를 사이에노코 일장의활극을 연출하얏으나오르고나리는 승객들의 한구경거리가되얏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들은즉 그녀자는평남대동군대동강면 송호리(平南大同郡大同江面松湖里)사는강룡선(姜龍善)의안해 방화실(方禾實)(二三)인데 그곳에사는 한복길 (韓福吉)이라는자와 비밀히정을통하야지내다가 전긔본남편

강룡선의 눈을피하야전긔두남녀는 손길을마조잡고 집을떠나 황주디방으로 오게되엿다 그리하야두남녀는 리상뎍가뎡을이루어볼작뎡으로이곳뎌곳외지오기는왓스나생활에먹고살길이망연한중돈푼이나흐하고자하나일할곳조차업서생활의도리가업게되매사랑의 얼키엇든 그녀자는하로아츰에 모란봉을두고 맹서하엿든마음은

봄눈가티 사러지고마랏다 그리하야 황주군황주면 텬왕리(黃州郡黃州面天皇里)에사는김명봉 (金明鳳)이라는 사람과다시정을 통하야 평생을가티살자고 맹서하고 가티나왓든 한복길을배척하얏다뜻밧게배척을바든한복길은미칠듯이 녀자에게달려들어애걸도 하엿스나 방화실은엇지내 맹맹히도 배척함으로할수업시 최후수단으로 네가나하고살지안흘터이면다시

너의본부 한데로가는것이당연한일이라가티평양으로가자거나 방화실은가려 안가겟다거니 신경의취하야 죽을지살지모르는 김명봉은역시 본남편이오기전에는 죽어도 못노켓다거니하며 녀자를 한가운데세우고밀고 당기고하야 일장큰풍파가일어난것이라더라(황주)

釜山에猩紅熱

무서운전염병중하나인 성홍열 (猩紅熱)은 일반이모다공황하는바인데부산(釜山)에는 관립이된뒤만아니라 또한외국과 관계가만흔무역항인고로 작년부터 당국자측에서는 바어에 진력하야오든동최근 십여일 동안으로환자가또하발생되얏는데 부산서뎡(釜山西町)이뎡목삼이번디의이호에 학교교원으로 잇는상량무(相良茂)의 안해량강 (浪江)(三○)은 지나간사일부터 성홍열에걸려 병원에진찰을 바다오든결과 칠일오후 륙시경에성홍열로판명되야서 즉시피병원인 순치병원으로 보내엿다더라(부산)

山에들어가 火田을파먹다가 二十圓罰金處分을밧고

전가족이서로붓들고서 한울을부르지지며통곡

지난십이월 초순경에 함남문천군명효면 명우리(咸南文川郡明孝面明友里)언덕 아래잇는오마사리집에서는 나히 삼십여세가량되야보이는 남녀와 십여세가량되는 아이들과 넷이서로붓삼고 우리가먹고 살어가는것도 이집커집다니며

풍을팔어 그날그날입에풀칠을하야 오든터에 이십원이라는돈이 어데서나며 돈이업스면부득이몸으로 대신가야 할터인데간후에는 집안의 어린자식들은무엇을먹고살어가나하며 슯히우는 처량한광경은 보는사람으로하야곰 측은한 마음을금치못하게 하얏는데 이제 그자세한말을드르면 그남자는 전긔명우리에사는 박흥경 (朴興景)이라는사람이요

그녀자와 아이들은그의안해와 자식이라는데 전긔박흥경은원래 가세가빈한하야 산중에드러가 화뎐(火田)을 괴경하기와 남의집으로 도라다니며품을팔어 간신히생활을 유지하야오든터에 지난팔월에도 모밀(藍麥)을 심으기위하야 자긔소유인 한백평가령되는 산에가서화뎐을 과간하얏든바 이일이소할

경찰관헌 의됴사가되야삼림령위반(森林令違反)이라는죄명으로함흥디방법원원산지텽(咸興地方法院元山支廳)으로부터구차한 처디에 처하바그와가티벌금 이십원에 처하얏다는바돈이날곳이업스니몸으로라도대신하야옥중생활을 할수밧게 업시되야 그와가티통곡을한것이데이광경을본 당디 유지 김병선(金秉善) 김준기 (金俊基) 김창록(金昌祿)씨외동리

유지제씨 들은이를가긍히녀겨참아그대로둘수업다하야동정금을 모아 다행히화를면하얏다더라(문천)

血誠엉긴五百圓

품푼히모혼돈을교육에 麻浦盆塵頭公廳에서

시내마포동(麻浦洞)분뎐두공텽(盆塵頭公廳)이라는 로동단데에서는 로동자의 피땀이엉킨돈오백원을 금번마포 청년회에서경영하는학교에 긔부하엿슴으로동회의 간부는 물론일반사회에서는 전긔분뎐두 공텽의열성에감탄치아니하는사람이 업다자세한 내용을 들으면마포청년회에서는 지금으로부터삼천여원의의연금을 어더서 삼십여평의집을세우고 돈이업서서 학교에 가지못하는 가이업는 아이들을수용하야 교수하여오든바 그집을세울여에 얼마간의

부족액이 잇서서떠해동안지내 나려오는동안에 무한한곤난을 당하다가 지금에이르러서는 존폐문뎨까지 생기엇다는말을듯고 재산이잇는 사람은돌으는데하나 한푼이 컨금가튼분뎐두공텽에서 이와가튼 열성이잇슴에는 이돈을밧는 사람으로하야금 반가움의 눈물을금치못하게하얏다는데 그공텽 회원은아래와 갓다더라

宋春楠 洪濤命 鄭熙權 南敎根 金聖三 張福屋外四十餘人

病院火災

동경축디에 원인은란로

십삼일 오후두시오분경에 동경시내축디(築地)명석뎡(明石町)성로가병원(聖路加病院)당직실로부터 불이이러나서 경시텽에서는그즉시로 소방자동차가 급히달려가서 진화에 로력하는동시에간호부(看護婦)들은입원한환자 일백오십여명을 간호부긔숙사와 및진료병원 (療擬病院)으로피난케하엿스나 긔관실(機關室)전염병(傳染病)과및 본관(本館)을반쯤남기고서는 전부례히고 동오후세시 이분경에겨우진화하엿는데 원인은 란머두던 (煖爐)이라고도 하는데방금소관 경찰서에서 엄중됴사중이라더라

불이낫슬 당시에부근 해군경리학교(海軍經理學校)에서는부도중좌(副島中佐)가 부하를다수히인솔하고 비상한 활동을하엿스나 입원환자중좌등(佐藤)의하루와 좌등「아기」두명은행위불명이 되엿는데 아마불에타죽은듯하다더라(동경뎐보)

乞人道德의一面?

서로구역을마타가젓다

요사이시내에자선단(慈善團)이일어나서 의지가지가업고 일을것벌을것이 업서서 보기에도딱작한두녀이로 몸속되는 대로가리고 눈바람이 심한 엄동에길거리에서 거위 죽어가는걸인을 구제하기에 로력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이에대하야 시내본뎡 (本町) 경찰서에서는 그관내에잇는 걸인을됴사하여본즉 례일만흔곳은 조선은행압과 남대문압과 황금뎡(黃金町)과 신뎡(新町)등 으로그의대부분은 나히 어린 아이로모다일뎡한 주소가업시 뷔인집이나 토굴(土窟)에모히어 자고먹는것을 가리하며 그들의수입이라는것은 말하여볼 무엇도업지마는 일종의

걸인도덕 이라는것이잇서서로 약속한 구역에는침범치못하는데 그중에 수입이가장만흔 곳은 신뎡(新町)으로그나마도 구역을 차지못하고『쓰러기통』이나 개천구석으로 몰아다니며 나무와 흔짚조각을줍고잇는것은 그만큼 개천가이나쓰레기통의주엄이되기쉬운운명이박도한자이라하야걸인에게싸지일뷰이류가 잇는이세상의 현상이야말로 참으로괴괴하다 하지아니할수업스니우리조선에서그러한그림자를보지아니할날은과연어느때일는지뜻잇는자의한숨을금치못하겟다더라

휘파람

▲한경남도함흥에서는 주재소의 일순사와조선인순사 가련합으로 사긔단을 꿈여가지고부고한ㄱ민의집네도라다니며독립단이라 가칭하고 오만여원을강칭하엿다이뜨위 순사로 조직된사긔겁뉘협단은 엇던사람이 데포할것인고!▲경긔도경찰부조사에 의지하면 조선에도해마다『스리』도적이 느러가는데 원래『스리』는 일본서드러온것으로조선인『스리』는아즉『일본인보다매우유치』하다고한다 이런것은『유치』는고사하고 아조 모를수록조흔일

北海道에風雪

긔차가불통

십이일북해도일대 (北海道一帶)에불든 큰풍설은 밤이되여도조곰도쉬지아니하고각처에서눈의재해가자조낫는데십삼일렴도성(鐵道省)으로 온뎐보를 보면진장(陣張)안개관(鷹關)사이의적설이 일척삼촌이상 이나되여렬차도 운뎐할수 업게된외에북해도에서도 권로(釧路)와근뎡(根室)사이에 렬차가 불통되엿스며 서화천액 (西和田額)부근에서는 혼합렬차 (混合列車)가오도가도 못하고 려객십사명은그정거장에서 밤을지내며 먼는중이라더라(동경뎐보)

巡査에運轉敎育

룡산경찰서 뎐긔지식도보급계획

렬차를 취톄하는경관이 차가굴러가는 리치나며개아라야 교통

創作 엷은敎師

星海 (表)

영민은 그이튼날에도 평상시나 다름업시 학교에출근(出勤)하엿다 그날에는 다른동료들은 그전날밤에 영민의처소에서 만나본 영민의친고이약이로 거의하로를 보내엇다그와가티 이상스러운 형용을하여가지고 또는 그와가티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업는행동을한 그벗이 단조(單調)한생활에 실증이난 그들에게는 한경이(驚異)인것이그려케 무리한것은 아니엇다여러가지로 말하는 가운데에는영민의귀에 거실니는말이 몰론만하엿섯다 그러나 영민은그벗을 위하야 변명하지도안햇다 그리고 다만될수 잇스면 화제(話題)를 그벗으로부터 다른것에 돌리라고하엿다그러나 매양다시 화제는그벗에게로 도라오고 마럿다엿젯든 이날하루는 영민에게는대단히 불유쾌한날이엇다 교실에 교수를하려 돌어가도눈압헤보이는 생도들은 다른날과는 다르게뵈엇다 그생도들은것흐로는 선생님선생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른이못되야이학교에서 죽어 바리려고서주하는 이들로뵈엿다 그생도들중에가 그러한것은 아니라고생도에게 대한자긔의 감정을 얼마큼 완화(緩和)하라고마음것 애를썻스나 막서사건(榮辱事件)으로 불유쾌하게된그긔분(氣分)은 그것을 허락을아니하엿다 생도들과 자긔사이에는 별안간 엇더한감정의구거(溝渠)가 가로노인듯 십헛다이것을 아모리 부인(否認)하라하엿스나 그것은 감출수업는엄연한 사실이엇다 엇더한때에는자긔의 참마음도 다른사람에게 뵈일수있는 형용을가진것이러하면 그는그마음이란것을쇠집어내어 어데여려 명인를주바를 압헤내노아 그들에게을 부르지지고십헛다 그러나이러한생각이 문득지내간뒤에는 그는 자긔의 처긔에로를 도리혀 우섯다 다만외로옴을 견딀수업는 헛웃슴이 입가에 돌을뿐이엇다 이러할때마다 허위(虛僞)를 놋기엿다

영민은 이날하로에 어느날보다도 일즉히 자긔려관으로 도라가라고하엿다 그리하야 모자를 들고 다른여러직원들에게 몬커나간다고 인사를하엿다 이것을 바라보든교장은 자긔자리에 안즌그대로나아가라는 영민을 불으더니와가티 무럿다

『오늘 교안(敎案)은 다되엇소?』

이학교에서 그이튼날에 교수할 교수안(敎授案)을 의례히그전날에 삭미어 교장의검열(檢閱)을바더왓섯스나이것은한형식에 지내지못하고 흔히는 교수안을 삭미기도하고아니삭미기도하여엿섯다

그런데 나아가는 영민을못들고 교안을 채근한 교장의말소리 에는 알수업는 독기(毒氣)와성넨것이 뛰워잇섯다

영민은 그소리만 듯고도 자못 불유쾌하엿다 그리하야뒤를 도라보며

『교안말슴이오? 아즉 못됨엿슴니다 집에가 써이지오』

역시 끝지못한 말소리로 대답하엿다

교장은 다시 아모말도업섯다 영민은 바라보지도안코자각할일만하고 잇섯다

이자리에서 영민이가바로나아가라든것을 중지하고 다시교안을만들것은 영민의자존심이 허락지안햇다 영민은 그대로 직원실을 나왓다 그나오면서도 권일에 볼수업는 교장의 자긔에대한태도가마음에 거슬니엇다 그리고무는심상치안흔 일이 이러난듯십헛다

생도의 커주(咀呪)!벗의괴상한형상!교장의성낸얼골!이것이 다영민의생각을 괴로웁개하는것들이엇다

영민은 여러가지생각에혼란된머리를 종진정하랴고려관에도라와누엇섯다

려관에 돌아온지 한시간이못되야 학교하인이 왓섯다학교하인의 방문밧게서

『M선생님 게신가요?교장이하실말슴이 잇다고 잠간좀오시라고요……』하고 부르는소리에 영민은 누엇든자리에서일어낫다

『곳갈터이니 먼저가렴으나』

하고일러서하인을 돌려보넨뒤에 영민은 다시 의복을가라입고 학교로향하엿다

그는학교로가면서 단단한결심을하엿다 교장이 자긔에대한태도는 말할것도업시엇더한도전뎍(挑戰的)태도이다 그리고 그가무슨일로 자긔에게도건늘하는지 그리유를여러가지예다 부처보앗다 그러나그와가려 불유쾌한 얼굴로 자긔에게 도런할것은 아모것도업다고 생각하엿다

그는 이러한생각을하는동안에 학교문압헤 당도하엿다

朝鮮饑饉救濟會

京城府水標町四二(電、光、一三九九)

近古未曾有의 大饑饉은 三百萬의同胞를 饑死巷으로驅入하다 悲絕慘絕한이 現象을 救하라 濟하라 熱情으로 血淚로 金錢으로 物品으로!

後援 東亞日報社 時代日報社 朝鮮日報社

祝朝鮮日報楊州支局設置

隱縣面事務所 面長 [illegible] 書記 [illegible] 同 [illegible] 同 [illegible]

東豆川公立普通學校

白石[illegible] 韓元敎

白石[illegible] 鄭寅善

白石[illegible] 李貞仁

州內面維楊里 [illegible]雜貨商 金化世 金旺淵

州內面維楊里 維楊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榮菴面虎院里 許[illegible]

白石面事務所 韓成履

維楊엽웟青年會員一同

伊淡面事務所 李演[illegible] 沈用成 鄭用[illegible] 朴[illegible]

白石面事務所 金大濟

州內面事務所 面長 盧益綸

州內面事務所 安鳳煥

州內面南坊里 李秀鳳

榮菴面維楊里 雜貨商 朴洪圭

州內面 朴鎭轍

州內面維楊里維楊立米所 主任 徐貞柱

廣積面事務所 面長 金觀鎭

廣積面事務所 韓相萬

廣積面啓蒙書堂 主 李載厚

廣積面事務所 徐承鳳

廣積面石隅里 李邦林

檜泉面德亭里 李錫勳

檜泉面高岩里 李昌緖

檜泉面高岩里 [illegible]然洙

檜泉面高岩里 [illegible]和

檜泉面德亭里 林贊秉

京元線東豆川驛前 崔今鳳

京元線東豆川驛前 李膺烈